



우리 아이가 짬한 겨울 방학 도서관 북캉스

북부도서관 새해 목표 6자로 말해요

대구북부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대구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북돋우고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자 지난 4일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한 해의 독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2022 새해 독서목표: 여섯 자로 말해요' 프로그램을 지난 12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북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이번 31일까지 '시민 북클레이션 응모작 전시회'가 북부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다. 대구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추천 도서 목록 44개를 전시해 새해 첫 독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제별 도서를 제안한다.

이 외에도 '각정이 너무 많아', '빨간 안경' 등의 원화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북부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원화 30점을 만나볼 수 있다.

북부도서관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도서관과 함께 따뜻하고 희망찬 2022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동부도서관 지역작가 미술 작품展

대구동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 생활을 위해 지난 6일부터 3월 31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지역작가 미술작품 전시 'Show Your ART'를 연다.

대구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에선 '희로애락'을 표현한 >서양화 8점 >사진 5점 >한국화 2점 >공예 1점 >설치 1점 >조각 1점 >미디어 1점 등 미술 작품 19점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화순 관장은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미술 작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에 대한 감응을 해소하고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두류도서관 초등·유아 특별강좌 개설

대구두류도서관은 성인은 물론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수강생 모집은 지난 19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졌다. 교재와 자료비는 각자 구매해야 하지만 강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 독서프로그램으로는 세계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비교·체험하며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과 함께 하는 지구촌 전통놀이 >선생님어랑 미리 1학년 등을 운영한다.

유아 독서프로그램으로는 4, 5살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마음이 자라는 그림책 놀이', 6, 7세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표현력을 키우는 그림책놀이'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선화 관장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아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주고, 예비 초등학생들은 대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울진도서관 과학·칼럼방 방학 특강

경북 울진도서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심미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겨울 방학특강을 기획했다.

울진도서관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 속 과학 원리의 이해를 돕는 '흥미진진 과학탐험', 악기 배우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줄 '손가락 피아노 칼럼방',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에 도전하는 '글쓰기가 쉬워지는 초등 기초 논술', 화가들의 기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화와 함께하는 미술 놀이터'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모집이 이뤄졌고, 조기에 마감될 만큼 반응이 좋았다.

배용호 관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방학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대구경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추운 겨울, 방학동안 '짬'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겨울방학을 맞아 대구경북에 있는 도서관들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서부도서관 7개 아동센터와 동화여행

대구서부도서관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독서 문해력을 길러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상은 서구에 있는 7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으로 지난 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운영한다.

모두 7개 프로그램이 각 8회씩 진행된다. 학생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고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동화구연과 그림책 놀이 >우리 함께 동화여행 >신나는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파닉스로 쉽게 읽는 영어동화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의 희망 사항을 반영해 >영어동요로 배우는 파닉스 >북아트로 떠나는 세계문화 여행 >포플포플 미로 역사여행 등도 준비돼 있다.

서부도서관은 독서·독후 활동 프로그램 참여하는 아동센터에 독서 자료를 함께 대출해주고 있다.

센터관계자는 "학생들이 센터 내에서 책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만족해한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숙 관장은 "서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몇 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덜 만들고 덜 쓰는 삶

생각을 근간으로, 중고 문화가 소비부터 폐기까지 직선적이었던 구조를 동글게 말아 이어주는 접합점 역할을 맡아 자연스레 현대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각종 쓰레기 테미와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점령한 바다나 빙하가 녹고 있는 극지방 이야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쓰레기 수거 대량'을 겪을 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주도로 쓰레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소비와 과잉생산을 이겨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를 덜 만들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는 것이나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잉여물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재활용 기술 역시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 아

닐까요? 최근에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등 보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꿈꾼다면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제시가 판조 지음)의 저자는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에서 오랫동안 식량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 삶을 둘러싼 푸드시스템은 전 지구의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영양 실조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겨우 12종의 곡물과 5종의 동물이 식탁 위를 점령한 불균형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온실가스의 10~24%가 식량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등 환경파괴에 일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인류는 유례 없이 풍부하고 좋은 음식을 즐기고 있지

만, 현재 먹고 있는 음식으로 인해 우리는 병들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득 국가에서 소고기 소비를 줄인다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면 공정성에 한발 나아가게 됩니다.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도 나 자신과 타인의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품 라벨을 확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식품을 신중하게 택하고, 지속가능한 포장을 한 식품과 닳아진 식품을 구매하는 것 등 건강과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미 있습니다. 이 책은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절한 책인데요. 어린이들에게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 '내가 라면을 먹을 때'를 추천합니다.

대구시교육청 학부모독서문화지원교사모임

학부모와 함께 나누고픈 북&톡

여러분들은 '그린 워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비를 통해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집에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많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도,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될 때마다 구입하는 것 역시 그린 워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린 워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활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요?

◆천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모두 '에코백'일까?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박현선 지음)는 핀란드의 수많은 중고 가게, 빈티지 상점, 벼룩시장 등에서 일상이 된 그들의 중고 문화를 소개하며 소비의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핀란드 경제 침체기 때 생기기 시작한 중고가게는 겸손과 검소라는 국민성과 만나 핀란드식 '중고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핀란드에선 '끼르뿌토리(Kirpputori)', 혹은 '끼르피스(Kirppis)'라 불리는 중고 가게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정기적으로 실내, 실외 벼룩시장이 열리고 관련 행사도 자주 열립니다.

저자는 핀란드의 중고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기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빨라진 소비와 폐기, 그리고 불거지는 환경 문제와 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고 문화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성장해왔다는 것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소비'라는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왼쪽)와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의 표지